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4호 [무게 제25773호] 주제 106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세상이 부럽도록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파수의 고장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찾아오시여 과일군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천지개벽의 역사를 수놓아온 자랑찬 발전행로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1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과일군을 돌아보면 잊지 못할 역사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여러차례 과일군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불면 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있었기에 과일군의 오늘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은 환경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함축된 곳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답게 잘 꾸민데 맞게 이곳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넋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륙군대장 서홍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전례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한 자랑을 보여드리고싶어 삼가 그리움의 편지를 올린 지난 9월초부터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최고령도자동지들

자기들의 고장에 모신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걱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과일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 과일생산의 중심기지답게 과일생산량을 선진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과일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그를 위한 온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펼쳐나선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백정보의 과수밭을 새로 개간하고 길종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

질비료를 생산하여 매 과일나무마다 시비하였으며 해안연선 60여리 구간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자력경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농약생산공정을 일떠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각종 농약들을 연구생산함으로써 가을과 고온현상이 지속된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정보당수확고를 2.5배, 특히 사과를 5.8배로 높이는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촉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과일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

다고 하시면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기를 실전으로 증명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혁명사적관과 과일군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과일군혁명사적관과 과일군연혁소개실에는 군을 세계적인 대규모의 과원으로 전면시켜주시 위대한 수령님과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불멸의 령도자육을 새기시며 세상에 자랑할만 한 청춘과원으로 가꾸어주시 위대한 장군님, 이곳 군에

2 번 으 로 계 속

